

KDB DAEWOO DAILY

2013. 5. 7 (화)

코스피지수 (5/6)	1,961.48P(-4.23P)
코스닥지수 (5/6)	567.13P(+1.80P)
KOSPI200지수 6월물	255.55P(-0.75P)
중국상해종합지수 (5/6)	2,231.17P(+25.67P)
NIKKEI225지수 (5/2)	13,694.04P(-105.31P)
원/달러 환율	1,094.50(-2.60)
엔/달러 환율	99.14(+1.17)
국고채 수익률 (3년)	2.56(+0.09)
유가(WTI) (5/6 20:47)	95.07(-0.88)
국내주식형펀드증감(5/3)	-111억원
해외주식형펀드증감(5/3)	-172억원
고객예탁금(5/3)	183,559억원(+870억원)
신용잔고(5/3)	45,973억원(-2억원)

퀀트이슈

미국의 R&D비용 자본화 결정은 중소형주에 긍정적

관심지표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기업분석

S&T중공업[매수] - 박영호: 추세 반전할 새로움은 부족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미국의 R&D비용 자본화 결정은 중소형주에 긍정적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GDP 구성항목에 R&D지출과 지적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화, TV 프로그램, 로열티, 디자인 가치 등도 GDP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R&D투자 금액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수준이다.

GDP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 효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별 비교 시 한국은 R&D 투자 비중이 높아 유리하다. 주요 국가 중 GDP대비 R&D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4.4%), 핀란드(3.8%), 한국(3.7%), 일본(3.3%), 대만(2.9%), 독일(2.8%), 미국(2.8%) 순이다. 미국의 변경된 GDP계산법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한국의 GDP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둘째, 미국 정부의 R&D지출이 용이해진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GDP 계산법 변경을 통해 연구개발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R&D지출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기업 마진 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R&D투자액은 영업비용 항목으로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용감소, 자산증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기업의 2012년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중은 4.6%였다. 순이익마진율이 10.3%였으므로 제도 변경을 감안한 수정순이익마진율은 14.9%로 높아진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통신장비,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의 마진 개선 효과가 높다. 같은 방법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제약,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의 마진 개선 효과가 높다.

넷째, 특히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 효과가 크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R&D투자 비중이 대기업보다 높다. 중소기업의 순이익마진율이 대기업보다 평균적으로 3%p 낮는데 R&D투자의 회계처리 방법 변경 후에는 1.7%p로 좁혀진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매출액대비 R&D비중이 높아 중소형주에게 유리해진다.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식의 주가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D투자는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R&D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

미국 GDP 산정방식 변경. R&D 지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포함

미국 GDP 산정방식 변경, R&D비용 포함하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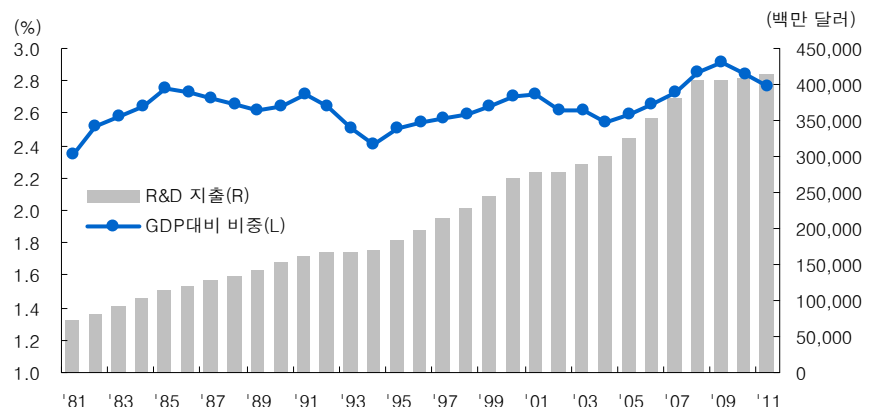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GDP 구성 중 투자 항목에 R&D지출과 지적재산권 등 각종 무형자산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화, TV 프로그램, 로열티, 디자인 가치 등도 GDP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바뀐 산정법은 7월 GDP 발표분부터 적용하고 1920년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의 R&D투자 금액은 연간 4천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수준이다(그림1 참조).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면 현재 15.7조 달러인 미국의 GDP가 16.2조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1999년 소프트웨어 투자를 GDP 산정에 포함시킨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림 1. 미국의 R&D 투자금액과 GDP대비 비중



자료: OECD, IMF,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GDP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 효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가별 비교 시, 한국 유리

효과 1 :

국가별 비교 시, 한국은 R&D 투자 비중 높아 유리

세계 경제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들도 GDP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동일한 기준 하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는 다음 페이지 <그림 2>와 같다.

GDP대비 R&D지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4.4%), 핀란드(3.8%), 한국(3.7%), 일본(3.3%), 대만(2.9%), 독일(2.8%), 미국(2.8%)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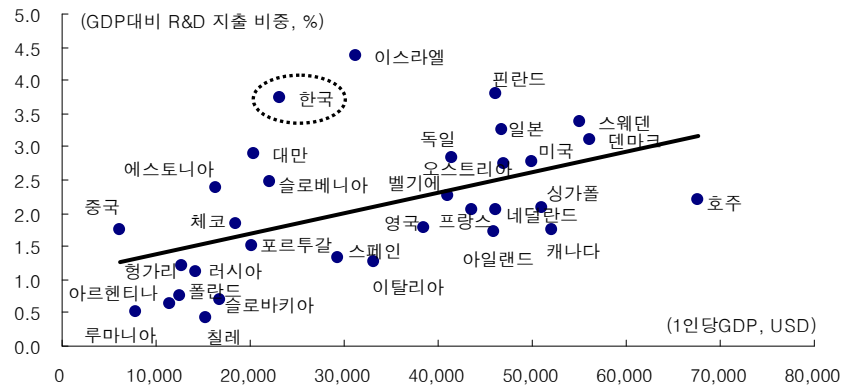
GDP 증가 효과는 이스라엘, 핀란드, 한국, 일본, 대만 순

미국의 변경된 GDP 계산법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핀란드,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미국 순으로 GDP 증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GDP 계산법은 한국에도
유리한 계산법

또한 1인당 GDP대비로 보면 한국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그림2 참조). 미국의 GDP 계산법은 한국에도 유리한 계산법이 된다.

그림 2. 국가별 1인당 GDP와 GDP대비 R&D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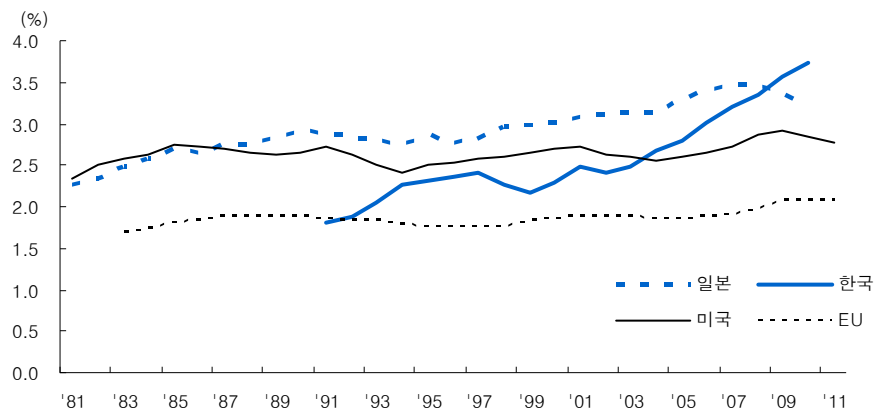


주: 2011년 기준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은 2000년대 이후 GDP대비 R&D투자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미국보다 높아졌고, 2009년부터는 일본보다 높아졌다.

그림 3. 한국, 매출액대비 R&D 지출 비중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정부의 R&D 지출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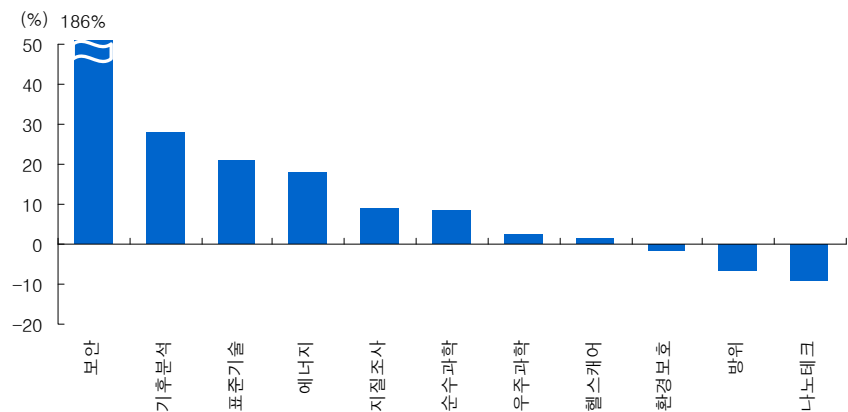
효과 2 :
미국 정부의 R&D지출이
용이해짐

두번째 효과로는 미국 정부의 R&D지출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부담이 커져 향후 10년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GDP 계산법 변경을 통해 연구개발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R&D지출에 대해서는 여유로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 R&D지출 계획 발표. 사이버 보안, 기후 변화 분석에 집중

실제로 지난 달에 오바마 정부는 2014년 정부 R&D지출 계획을 발표했는데, 총 R&D 지출 책정액이 1,428억 달러로 2012년대비 1.3% 증가했다. 지출의 큰 방향은 방위관련 연구개발을 줄이고 **보안관련 연구, 기후변화 연구 등 비국방 연구개발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보안분야 중 사이버 보안관련 연구에 2012년 대비 1.5억 달러 증액된 8.3억 달러가 책정되었다.

그림 4. 2014년 정부 지출 R&D 항목별 예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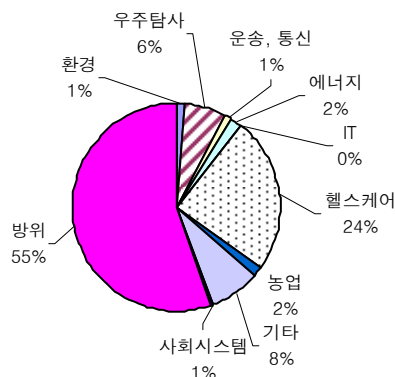


자료: 백악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참고로 2012년에 집행된 정부 지출 중 R&D관련 지출은 1,406억 달러였다. 미국의 전체 R&D지출 중 1/3이 정부 몫인 셈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방위비에 집중되었다. 2012년 미국 정부의 R&D지출에서 방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나 되었다(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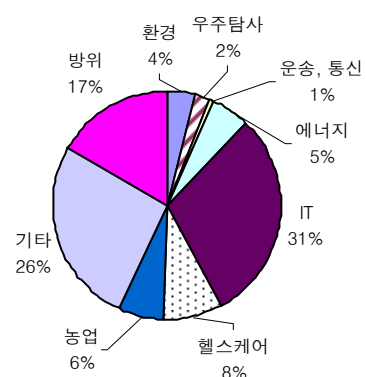
17% 수준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 정부가 방위 관련 연구개발에 얼마나 집중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5. 정부 R&D 지출 항목별 비중 - 미국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정부 R&D 지출 항목별 비중 - 한국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효과 3 :
R&D지출의 회계 처리,
영업비용에서 무형자산으로 변경

인터넷, 통신장비,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마진 개선
효과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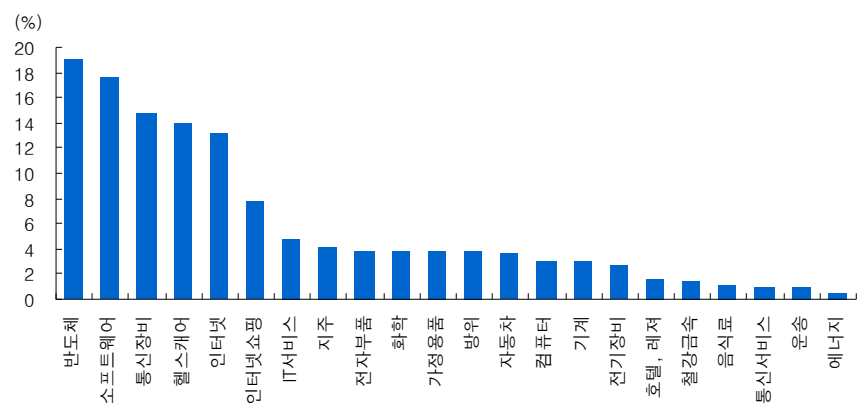
3) 기업 마진 개선 효과 발생

GDP 산정 방법 변경은 미국 기업의 수익성도 높여줄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R&D투자액은 영업비용 항목으로 처리되었는데 앞으로는 무형자산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용 감소, 자산증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S&P500 기업의 연간 R&D투자 금액은 매출액대비 4~5% 수준이다. 2012년에는 4.6%였는데, 순이익마진율이 10.3%였으므로 제도 변경 후에는 순이익마진율이 14.9%로 높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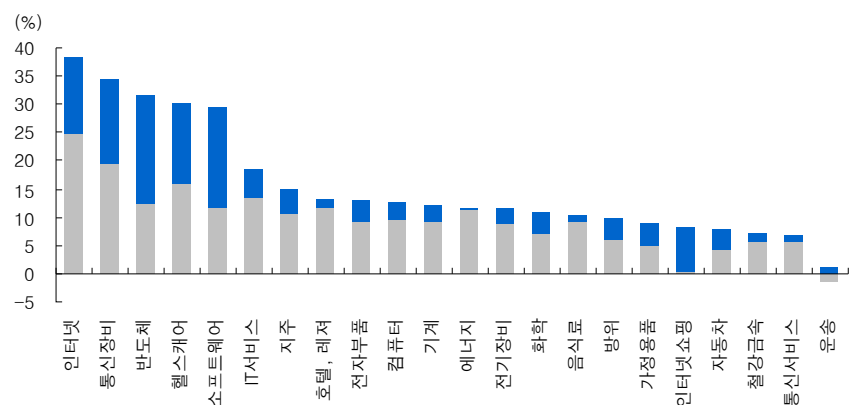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헬스케어 등의 R&D투자 비중이 높았다(그림 7 참조). <그림 8>은 R&D투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2012년 순이익마진율이다. 인터넷, 통신장비,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이 순이익 마진율이 높으면서 변경 효과를 누리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미국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2012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R&D비용의 무형자산 처리 시 순이익마진율 - 업종별(2012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같은 방법을 한국에도 적용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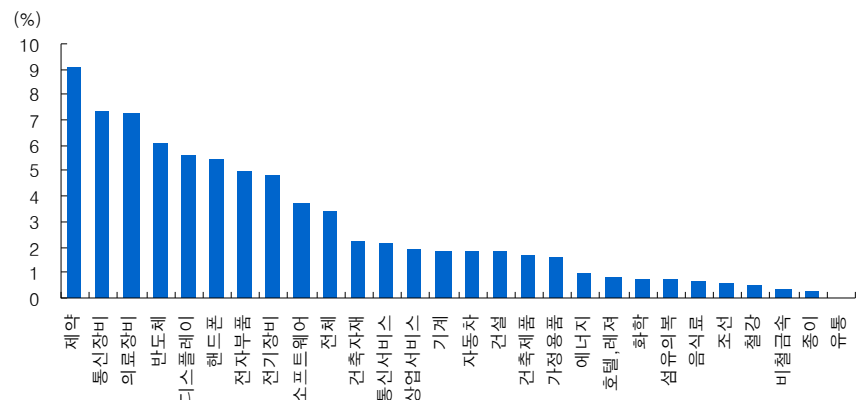
제약,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업종의 마진 개선 효과 큼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다. R&D지출을 연구비와 개발비로 나누어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개발비와 연구비는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 항목으로의 처리는 연구 결과물의 실질적인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이루어지고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각하게 된다(실제로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면 총 지출의 99%가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2012년 순이익마진율은 7.1%였다. 매출액대비 R&D비중이 3.3%였으므로 미국의 변경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순이익 마진율이 10.4%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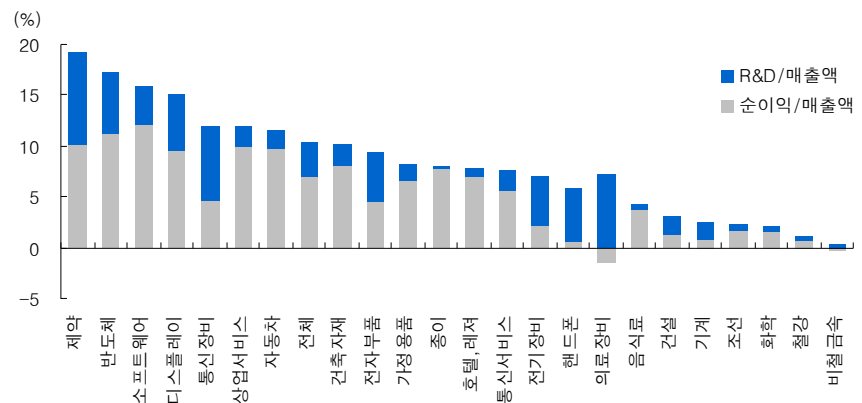
R&D 투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제약, 통신장비, 의료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다. <그림 10>은 R&D투자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2012년 순이익마진율이다. 제약,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등이 순이익 마진율이 높으면서 변경 효과를 누리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한국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대비 R&D 투자 비중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R&D비용의 무형자산 처리 시 순이익마진율 - 업종별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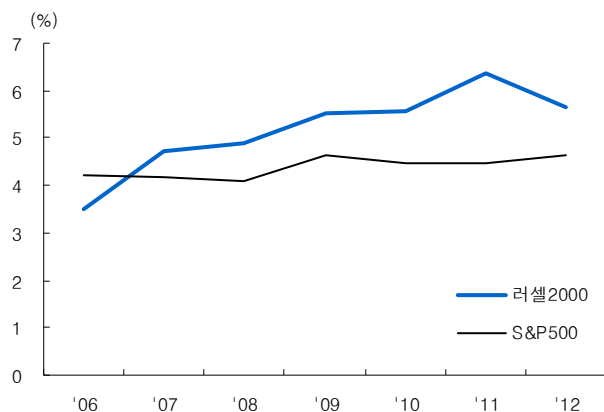
4) 특히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 효과 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 효과 큼

특히 중소형주의 실적개선 효과가 더 클 전망이다. 미국의 러셀2000 지수 구성 종목 중 R&D데이터가 존재하는 30사의 매출액대비 비중은 5.6%로 대형주(S&P500)보다 높다(2012년 기준). 순이익 마진율이 7.8%이므로 R&D비용이 무형자산 처리될 경우 순이익마진율은 13.4%로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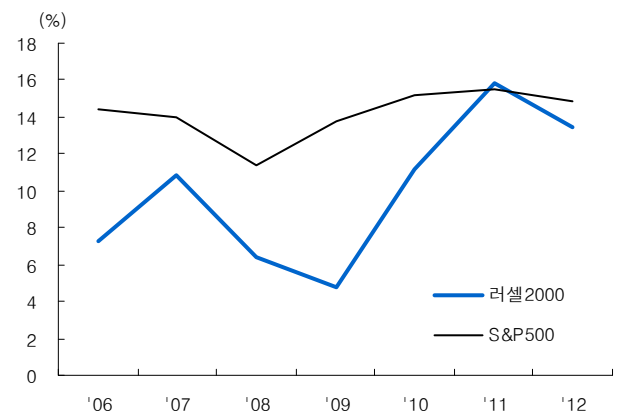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의 순이익마진율이 대기업보다 평균적으로 3%p 낮는데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R&D투자를 합치게 되면 최근 3년 평균 1.7%p로 좁혀진다.

그림 11. 미국 기업의 매출액대비 R&D 비중 비교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R&D비용의 무형자산 처리 시 순이익마진율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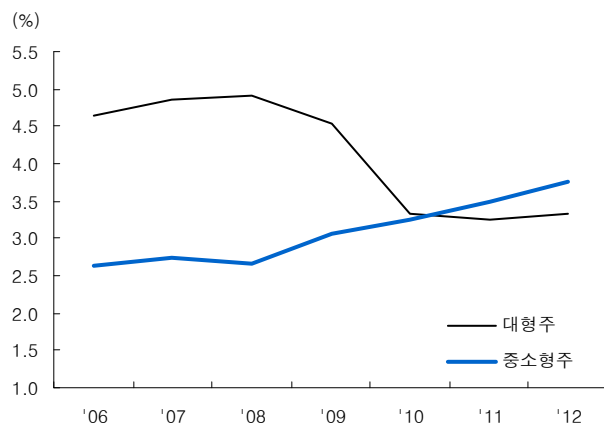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한국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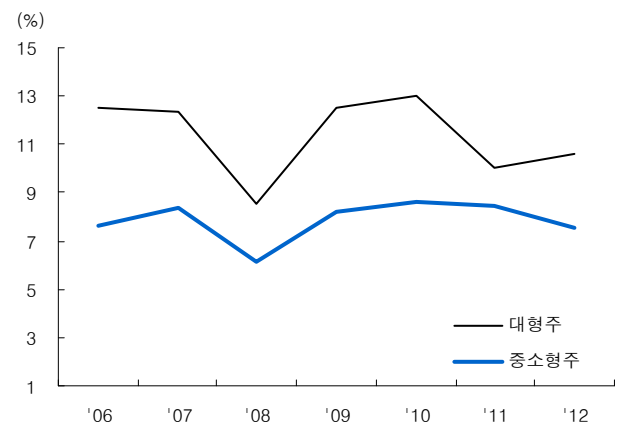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매출액대비 R&D비중이 높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대형주는 매출액대비 3.3%를, 중소형주는 3.8%를 R&D에 투자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한국 기업의 매출액대비 R&D 비중 비교



주: 2012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은 대형주, 5,000억원 미만은 중소형주로 분류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R&D비용의 무형자산 처리 시 순이익마진율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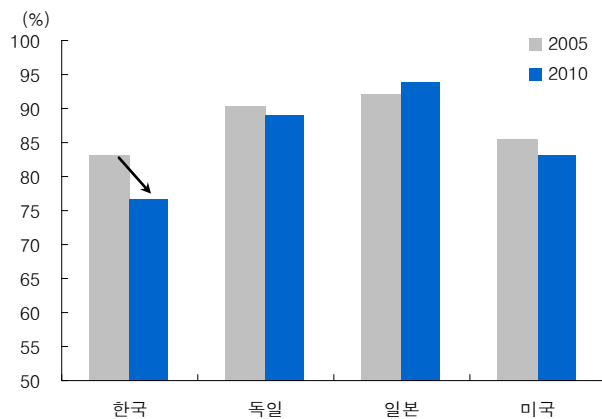
주: 2012년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은 대형주, 5,000억원 미만은 중소형주로 분류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대형주는 매출액대비 R&D비중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형주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성장 모멘텀이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전체 R&D투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은 77% : 23%이다(2012년 기준). 독일의 89% : 11%, 미국의 83% : 17%에 비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그림15,16 참조). 이는 소프트웨어, 게임, 의료기기 등 IT와 헬스케어 관련 중소형주 중심으로 연구 개발 투자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 17,18>에서 볼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와 게임 등 서비스업의 R&D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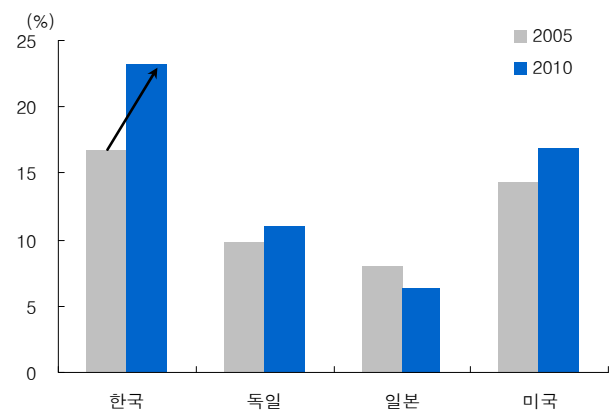
그림 15.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 - 대기업



주: 종업원 250인 이상 기업 기준임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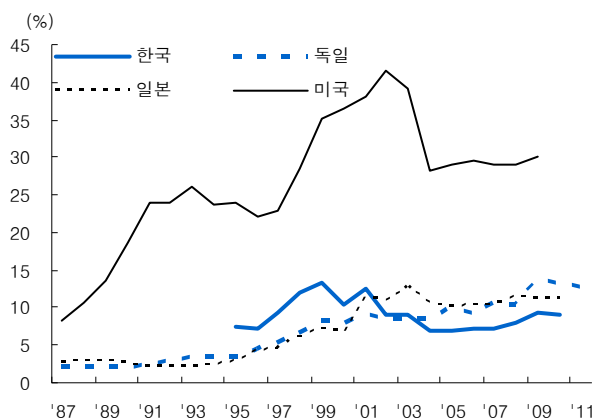
그림 16.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소기업



주: 종업원 250인 미만 기업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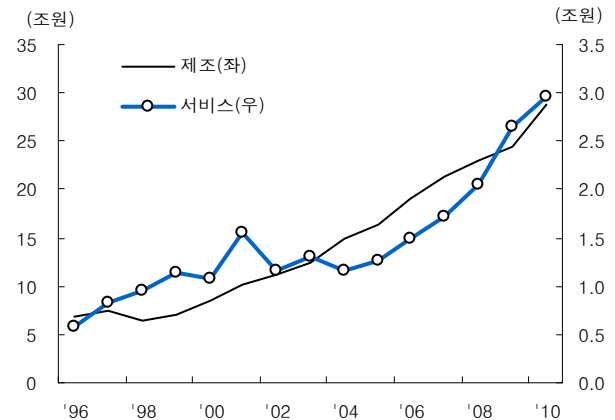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전체 R&D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한국, 최근 들어 서비스업 R&D지출 증가세 빨리짐



자료: OECD,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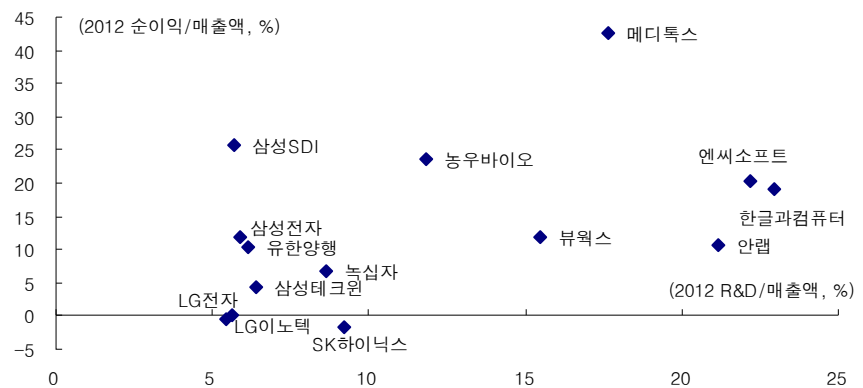
**R&D투자는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

전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장기 성장성이 기대되는 주식의 주가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D투자는 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주식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중소형주가 쉬어 가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장기 성장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R&D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대비 R&D비중이 높은 기업은 <그림 1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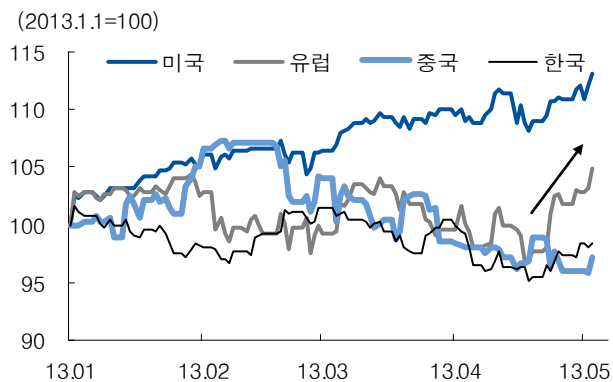
그림 19. 매출액대비 R&D비중이 높은 기업

자료: WISEf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 5월 2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10개월 만에 기준금리 25bp 인하(0.75%→0.50%). 또한 단기자금(MRO) 지원 연장, 최저 대출금리 인하시행
- 주요 신용지표들은 4월 중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선 반영. 저금리 효과의 실물경제로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ABS 매입, 예금금리의 (-)화 등 추가 정책 시행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데 의의

그림 1. 4월 중순 이후, 주요국 증시 중 유럽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에 가장 크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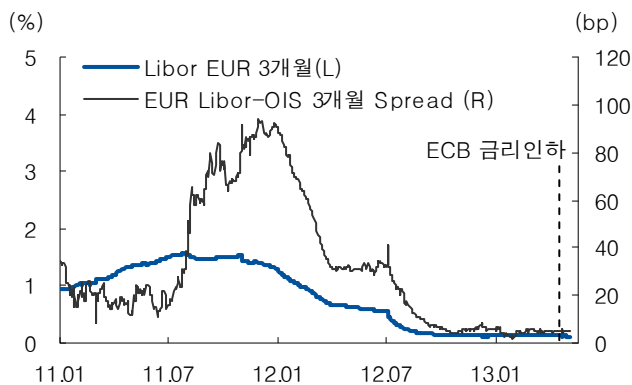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재정 위험국들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초 이후 저점 돌파. 스페인 금리는 2010년 이후 첫 4%대 초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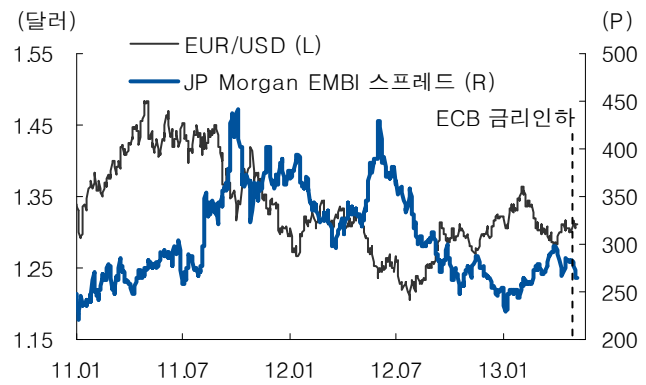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단기자금조달 금리는 연초 이후 안정 지속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EMBI스프레드는 축소, 유로화는 강세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유럽 주요 은행들의 CDS도 연초 저점 수준으로 하락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CRB 상품지수와 MSCI 이머징 지수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S&T중공업 (003570)

추세 반전할 새로운 부족

자동차부품

Results comment
2013. 5. 7

(Maintain)	중립
목표주가 (원, 12M)	-
현재주가(13/05/06,원)	13,050
상승여력	-

영업이익(13F,십억원)	64
Consensus 영업이익(13F,십억원)	60
EPS 성장률(13F,%)	20.9
MKT EPS 성장률(13F,%)	20.8
P/E(13F,x)	9.0
MKT P/E(13F,x)	9.4
KOSPI	1,961.48
시가총액(십억원)	424
발행주식수(백만주)	32
유동주식비율(%)	56.4
외국인 보유비중(%)	16.1
베타(12M,일간수익률)	0.75
52주 최저가(원)	10,300
52주 최고가(원)	14,400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2 14.0 -8.4
상대주가	3.5 12.2 -7.0



자동차/타이어

박영호

02-768-3033
youngho.park@dwsec.com

윤태식

02-768-4169
michael.yun@dwsec.com

이상민

02-768-4170
sangmin.lee@dwsec.com

1Q13 Review: S&TC 실적 호전에 따라 영업이익률 개선(4Q12 5.9%→1Q13 8.7%)

S&T중공업의 2013년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61억원과 15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8.7%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2.8%p 개선됐고, KDB대우증권 전망을 상회했다. 예상보다 이익 개선폭이 컸던 것은 주로 결합대상인 S&TC(100840)의 영업실적 호전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S&TC의 경우 기말환율 상승효과 등에 따라 기성인식된 수주의 손익이 양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본업의 경우는 핵심 사업부인 방산 매출액과 공작기계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고 개별 영업실적 수익성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진한 상황이다. 방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3.8% 감소한 501억원을, 공작기계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0.5% 감소한 72억원을 각각 기록하는데 그쳤다. 본업 영업실적의 긍정적 추세 전환보다는 연결대상 계열사인 S&TC의 일시적 성격이 포함된 실적 호전 기여가 컸다는 판단이다.

2013년 전망? 방산의 중기적 성장성 결여, 공작기계 부진세 예상 유효

본업의 경우 핵심 사업부인 방산과 현재 가장 부진한 공작기계가 하반기 들어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기존 전망보다 대체로 부진한 진도라는 판단이다. 1분기 방산 부문 매출액은 KDB대우증권 전망을 11% 밑돌았다. 올해 성장성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 부문 매출액도 기존 예상을 3.7% 하회했다.

차량 부문의 경우 벤츠 상용차에 대한 신규납품(브라질, 독일 본사向 상용차용 액슬하우징 납품) 등에 힘입어 실적이 호전될 전망이다. 반면 동시에 주력인 고무의 방산 부문 성장성은 중기적으로 여전히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부문 중장기 성장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K2 흑표전차 파워팩 납품이 재개될지도 여전히 미지수이다. 공작기계 실적 개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TC 매출액은 점진적인 업황과 수주환경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환율 영향 등 일회성 성격이 반영된 1분기 영업이익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의견 중립 유지, 본업의 실적개선 방향 전환은 아직 요원

2013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57억원과 64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률은 2012년 6.2%에서 7.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이익과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7%, 21% 증가할 전망이다. 이익 증가율이 비교적 높지만 이는 1) 2012년 감익(減益) 폭이 컸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하고, 2) 본업의 핵심사업부 실적 개선이 아닌 결합대상 계열사 S&TC의 실적개선 기여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소 평가절하된다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2013년 예상 PER 9.0배는 매력적이지 않다.

결산기 (12월)	12/10	12/11	12/12	12/13F	12/14F	12/15F
매출액 (십억원)	581	744	808	856	959	1,056
영업이익 (십억원)	67	70	50	64	74	84
영업이익률 (%)	11.5	9.4	6.2	7.5	7.7	7.9
순이익 (십억원)	54	54	39	47	57	64
EPS (원)	1,648	1,647	1,203	1,455	1,768	1,961
ROE (%)	9.1	8.4	5.7	6.6	7.6	7.9
P/E (배)	13.9	9.9	9.9	9.0	7.4	6.7
P/B (배)	1.2	0.8	0.6	0.6	0.6	0.5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S&T중공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S&T중공업의 2013년 1분기 잠정영업실적

(십억원, %)

	1Q12	4Q12	1Q13P		YoY	QoQ
			실적치	KDB대우 전망		
매출액	189.5	225.0	176.1	188.5	-7.1	-21.8
영업이익	16.4	13.4	15.4	12.5	-6.2	14.9
세전이익	17.8	10.5	18.8	13.7	5.6	79.8
순이익	11.7	7.4	11.7	9.0	0.0	58.3
영업이익률	8.6	5.9	8.7	6.6		
순이익률	6.2	3.3	6.6	4.8		

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S&T중공업,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2. S&T중공업의 분기 및 연간 영업실적 전망

(십억원, %)

	2012				2013F				2Q13F 증감률		2012	2013F	2014F
	1Q	2Q	3Q	4Q	1QP	2Q	3Q	4Q	YoY	QoQ			
매출액	189.5	194.8	198.5	225.0	176.1	197.4	217.3	264.9	1.4	12.1	807.8	855.7	958.8
- K-IFRS 별도기준	128.6	136.1	139.3	177.4	122.6	139.6	154.8	197.5	2.6	13.9	581.4	614.4	681.7
영업이익	16.4	10.2	10.4	13.4	15.4	15.2	16.4	17.0	49.3	-0.7	50.4	64.0	74.0
세전이익	17.8	16.9	10.5	10.5	18.8	15.3	18.5	18.9	-9.5	-18.8	55.7	71.5	83.7
순이익	11.7	13.5	6.5	7.4	11.7	9.9	12.7	13.0	-27.1	-15.7	39.1	47.3	57.4
영업이익률	8.6	5.2	5.2	5.9	8.7	7.7	7.5	6.4			6.2	7.5	7.7
순이익률	6.2	6.9	3.3	3.3	6.6	5.0	5.8	4.9			4.8	5.5	6.0

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S&T중공업 사업보고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3. S&T중공업의 분기 및 연간 사업부별 매출구성 전망

(십억원, %)

		2012				2013F				2Q13F 증감률		2012	2013F	2014F
		1Q	2Q	3Q	4Q	1QP	2Q	3Q	4Q	YoY	QoQ			
연결 매출액	합계	189.5	194.8	198.5	225.0	176.1	197.4	217.3	264.9	1.4	12.1	807.8	855.7	958.8
	차량	37.6	39.3	37.1	39.5	39.4	42.9	45.9	49.2	9.0	8.8	153.5	177.3	197.7
	방산	58.1	64.3	66.6	98.6	50.1	58.6	67.9	101.0	-8.9	16.9	287.6	277.5	299.9
	공작기계	12.1	5.7	8.6	10.7	7.2	8.3	10.5	13.9	45.6	15.3	37.1	39.9	61.5
	소재	20.8	26.8	26.9	28.6	25.9	29.9	30.5	33.4	11.5	15.4	103.1	119.7	122.7
	기타	6.8	4.3	4.6	5.0	9.6	5.9	6.3	6.9	38.1	-38.2	20.6	28.7	30.6
	S&TC	54.1	54.4	54.6	42.7	43.8	51.9	56.2	60.6	-4.6	18.3	205.7	212.5	246.5
매출액 비중	차량	19.8	20.2	18.7	17.6	22.4	21.7	21.1	18.6			19.0	20.7	20.6
	방산	30.7	33.0	33.6	43.8	28.5	29.7	31.2	38.1			35.6	32.4	31.3
	공작기계	6.4	2.9	4.3	4.8	4.1	4.2	4.8	5.2			4.6	4.7	6.4
	소재	11.0	13.8	13.6	12.7	14.7	15.1	14.0	12.6			12.8	14.0	12.8
	기타	3.6	2.2	2.3	2.2	5.5	3.0	2.9	2.6			2.6	3.4	3.2
	S&TC	28.5	27.9	27.5	19.0	24.9	26.3	25.9	22.9			25.5	24.8	25.7

자료: S&T중공업 사업보고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4. S&T중공업의 수익예상 변경

(십억원, 원, %)

	변경전		변경후		변경률		변경 근거
	2013F	2014F	2013F	2014F	2013F	2014F	
매출액	882.5	986.9	855.7	958.8	-3.0	-2.9	- 1Q13 잠정영업실적 반영
영업이익	60.1	74.9	64.0	74.0	6.5	-1.2	- 방산, 공작기계 매출액 전망 하향조정
세전이익	66.8	84.1	71.5	83.7	7.1	-0.5	- 원재료비, 임가공비 등 원가율 개선
순이익	44.9	58.7	47.3	57.4	5.2	-2.3	추가 반영
EPS	1,383	1,809	1,455	1,768	5.2	-2.3	- 2013년 S&TC 영업실적 전망 상향
영업이익률	6.8	7.6	7.5	7.7			
순이익률	5.1	6.0	5.5	6.0			

주: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72.4 / 5일 7544.4)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590.6 / 5일 -3954.9)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화학	299.7	449.6	전기전자	-415.5	1,637.7	철강금속	220.4	-518.6	금융업	-367.9	-1,126.1
유통업	230.2	955.3	운수장비	-232.1	2,087.8	음식료	51.1	-279.5	전기전자	-153.4	404.2
금융업	127.9	180.7	전기가스	-111.9	315.9	건설업	43.2	-216.7	화학	-146.7	-27.2
건설업	120.6	-431.8	음식료	-85.0	-119.6	운수창고	42.4	-53.7	보험업	-114.9	7.4
보험업	76.7	388.1	통신업	-67.0	1,316.6	기계	29.7	117.8	전기가스	-97.1	-325.2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레버리지	221.4	1,691.4	현대중공업	-241.1	-276.0	삼성전자우	194.4	33.0	SK하이닉스	-365.6	-30.4
LG화학	193.8	259.9	삼성전자우	-113.4	-86.3	삼성전기	110.8	194.3	하나금융지주	-114.7	-576.1
SK이노베이션	163.6	-389.2	코스맥스	-74.9	-155.1	고려아연	95.7	-99.2	한국전력	-114.4	-339.4
현대건설	96.1	-387.8	삼성전자	-69.4	2,362.4	POSCO	65.9	-201.3	LG전자	-101.9	-733.3
KCC	86.0	98.4	한진해운	-69.2	-70.4	오리온	63.8	104.4	LG화학	-98.5	-40.7
호텔신라	75.4	76.5	한국전력	-68.3	457.8	현대제철	59.3	-137.6	NHN	-95.1	-528.1
삼성전기	70.1	436.7	삼성중공업	-56.1	-6.8	삼성엔지니어링	57.9	-280.0	롯데케미칼	-89.7	54.7
하나금융지주	63.7	88.8	현대차	-55.2	976.9	현대중공업	49.2	97.7	현대차	-88.1	-114.1
대림산업	59.2	-19.2	POSCO	-53.9	-3.7	한진해운	48.7	38.0	BS금융지주	-71.2	-105.3
기아차	58.5	1,869.0	LG유플러스	-52.3	-256.1	대우조선해양	47.0	-34.0	SK이노베이션	-68.9	185.3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18.2 / 5일 -1099.6)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72.6 / 5일 677.1)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통신서비스	30.9	158.6	IT부품	-55.7	-168.0	제약	68.3	117.2	통신장비	-6.4	-69.4
금속	19.7	18.3	방송서비스	-42.8	-169.5	IT부품	38.1	33.1	통신서비스	-6.1	24.7
정보기기	11.6	-7.9	오락.문화	-38.0	-459.6	금속	25.5	57.5	유통	-5.9	10.1
유통	11.5	89.8	음식료.담배	-36.4	7.4	기계.장비	19.8	-1.0	음식료.담배	-5.3	35.8
기타제조	4.1	-8.8	반도체	-27.4	-87.5	오락.문화	18.4	-178.7	정보기기	-1.8	-7.5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게임빌	47.7	-40.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4.1	-54.3	셀트리온	78.2	59.2	서울반도체	-15.3	36.9
SK브로드밴드	31.2	157.0	컴투스	-52.9	-168.7	파트론	72.1	-2.2	동서	-15.0	-17.5
성광벤드	24.0	13.4	서울반도체	-36.4	-93.7	차바이오엔	22.1	24.5	크루셜텍	-13.7	5.2
비아트론	17.5	29.3	CJ E&M	-26.2	-54.4	농우바이오	16.1	17.4	메디톡스	-12.4	53.3
파라다이스	15.3	-8.6	이엘케이	-19.9	-17.0	마кро젠	14.5	6.6	KG모빌리언스	-10.4	16.0
에스엠	13.9	-385.5	덕산하이메탈	-18.3	-21.8	파라다이스	13.5	-16.3	CJ E&M	-8.1	1.5
코나아이	12.8	-9.3	매일유업	-17.5	-53.9	컴투스	13.0	0.7	씨젠	-7.6	-6.2
인터파크	11.5	-40.9	비에이치	-16.8	-30.6	GS홈쇼핑	12.8	53.1	이엘케이	-7.5	-15.9
KH비텍	10.9	44.3	한글과컴퓨터	-15.6	21.5	유진테크	11.3	6.4	휴맥스	-6.5	-8.1
빅솔론	10.8	8.0	위메이드	-15.6	-1.1	다날	11.2	16.9	메가스터디	-6.0	-2.2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200	14,990.5	삼성전자	-22,784.3	SK이노베이션	12,267.0	우리금융	-5,768.0
LG화학	13,303.0	현대중공업	-11,752.8	S-Oil	6,087.3	현대중공업	-5,553.0
삼성전기	12,589.4	삼성중공업	-7,117.9	신한지주	5,513.9	SK하이닉스	-5,347.9
현대건설	10,420.3	한국전력	-6,685.3	GS	5,271.1	한진해운	-5,245.3
호텔신라	8,600.4	고려아연	-5,103.2	두산	4,502.1	한국가스공사	-4,551.8
SK이노베이션	5,687.4	현대차	-4,587.8	대우조선해양	4,310.8	삼성전자우	-3,871.1
대우인터내셔널	4,171.1	LS	-4,343.9	SK	3,869.7	대우증권	-3,713.7
KCC	3,984.5	TIGER 200	-4,214.0	LG화학	3,620.6	삼성전자	-3,564.6
현대제철	3,846.0	SK하이닉스	-4,199.9	동아에스티	3,520.6	오리온	-2,638.6
GKL	3,645.7	두산인프라코어	-4,180.7	대한항공	3,396.4	KB금융	-2,623.0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하이닉스	2,952.1	KODEX 레버리지	-3,248.0	삼성전자	8,279.2	현대중공업	-7,558.7
신한지주	2,158.3	삼성전기	-2,744.1	삼성생명	5,674.7	삼성전자우	-3,762.3
KT	1,824.8	POSCO	-2,101.1	SK이노베이션	3,659.6	SK하이닉스	-3,464.1
삼성전자	1,443.7	엔씨소프트	-1,901.9	하나금융지주	3,605.5	TIGER 200	-3,342.2
현대중공업	1,437.3	현대산업	-1,220.0	NHN	3,031.2	일신방직	-2,570.0
GS	1,401.5	삼성전자우	-1,066.1	한국전력	2,897.2	KB금융	-2,011.8
삼성물산	1,259.0	하나금융지주	-929.9	LG화학	2,580.1	KODEX 200	-1,869.5
대한항공	1,198.4	롯데케미칼	-902.6	삼성중공업	2,517.7	LG유플러스	-1,389.8
현대차	1,052.5	제일모직	-860.3	SK텔레콤	2,201.8	LS산전	-1,293.6
KODEX 200	908.4	LG유플러스	-735.9	우리금융	1,932.7	LG디스플레이	-1,251.4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ODEX 레버리지	54.8	22,138.2	코스맥스	3,622.5	7,490.9
삼성전기	11,078.8	7,008.8	삼성전자	5,313.0	6,943.2
대림산업	1,672.7	5,922.6	한국전력	11,441.4	6,834.0
대우조선해양	4,702.4	5,681.4	삼성중공업	1,214.3	5,614.0
삼성물산	4,184.9	3,848.7	현대차	8,808.3	5,522.9
삼성엔지니어링	5,794.2	3,679.8	CJ	1,599.1	5,128.3
대한항공	588.9	3,665.0	대우증권	2,025.2	4,780.2
현대제철	5,934.4	3,135.6	우리금융	3,024.8	4,676.3
풍산	1,514.0	2,918.5	SK하이닉스	36,556.8	4,403.7
효성	1,301.1	2,634.2	LG전자	10,188.8	4,381.4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게임빌	2,115.6	컴투스	-1,754.3	에스엠	1,524.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5,072.2
파라다이스	1,444.9	덕산하이메탈	-1,442.4	코나아이	1,297.7	서울반도체	-1,961.8
메디톡스	1,146.7	농우바이오	-1,117.8	SK브로드밴드	1,187.4	씨젠	-1,555.0
비아트론	1,032.4	비에이치	-1,057.4	성광벤드	1,108.8	CJ E&M	-1,498.4
심텍	989.9	서울반도체	-854.4	한국사이버결제	855.4	한글과컴퓨터	-1,065.5
이녹스	857.6	이엘케이	-844.2	게임빌	744.7	컴투스	-1,048.7
아바텍	747.8	매일유업	-782.9	AP시스템	679.0	골프존	-966.4
씨젠	716.8	이노칩	-725.7	동국제약	564.5	네패스	-760.9
동서	671.4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14.0	동서	531.1	태광	-688.9
네패스	655.7	코오롱생명과학	-613.3	인터파크	495.7	솔브레인	-638.4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차바이오앤	261.2	CJ E&M	-597.0	실리콘웍스	831.8	CJ오쇼핑	-712.2
인터플렉스	230.1	에스에프에이	-554.8	게임빌	585.2	농우바이오	-613.7
포스코켄텍	190.1	컴투스	-511.3	씨젠	470.1	골프존	-595.2
게임빌	159.5	모베이스	-256.6	휴온스	364.9	이엘케이	-555.4
서원인텍	121.3	에스엠	-242.8	제로투세븐	287.5	루멘스	-528.8
이트레이드증권	84.6	서울반도체	-229.9	이오테크닉스	208.0	네패스	-416.4
파라다이스	83.2	메디톡스	-220.1	빅솔론	204.5	젠펙스	-372.1
제로투세븐	75.8	SK브로드밴드	-215.2	바이로메드	204.0	윈스테크넷	-364.3
테라세미콘	65.4	성우하이텍	-207.7	한글과컴퓨터	196.2	이엠텍	-304.5
세코닉스	60.5	유진테크	-188.5	사람인에이치알	183.2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60.0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성광벤드	1,028.0	2,404.4	서울반도체	1,534.3	3,636.5
비아트론	1,108.1	1,748.2	CJ E&M	808.5	2,618.5
파라다이스	1,345.4	1,530.3	이엘케이	752.6	1,988.5
에스엠	312.0	1,388.7	덕산하이메탈	365.6	1,825.5
코나아이	43.8	1,278.1	매일유업	527.6	1,750.4
인터파크	577.6	1,151.0	비에이치	96.1	1,678.4
AP시스템	151.9	872.7	한글과컴퓨터	290.2	1,564.4
이녹스	480.1	608.4	위메이드	363.3	1,556.7
씨티씨바이오	657.9	343.7	태광	333.5	738.5
셀트리온	7,824.0	261.3	KG모빌리언스	1,035.7	711.9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306	1309	1312	KSPH6H9S
기 준 가 격	256.02	256.30	257.90	259.75	1.45
시 가	257.63	258.25	260.00	259.75	1.45
고 가	258.56	259.80	261.10	259.75	1.50
저 가	254.96	255.55	257.20	259.75	1.45
종 가	255.20	255.55	257.20	259.75	1.50
전 일 대 비	-0.82	-0.75	-0.70	-	0.05
이 른 가 격	-	255.97	257.63	259.41	1.66
총 약 정 수 량 *	73,716	233,651	117	-	119
총 약 정 금 액 **	3,053,309	30,126,818	15,174	-	30,921
미 결 제 약 정	-	113701 (-938)	4131 (102)	195 (0)	-
배 당 지 수 ***	2.81% (CD금리)	0.00	0.13	0.13	-
반 응 배 수		1.18	1.08	-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1.074			
전 일 대 비		0.401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H6H9S : 6월물과 9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105,604	62,877	59,830	648	1,369	378	2,615	445
	매 도	109,327	58,525	58,925	734	2,906	276	2,707	365
	비 중	46.0%	26.0%	25.4%	0.3%	0.9%	0.1%	1.1%	0.2%
순 매 수 누 적	전 일	-3,723	4,352	905	-86	-1,537	102	-92	80
	누 적	-24,976	7,028	3,597	-1,520	14,200	-386	909	1,135
매 매 편 향 강 도		-1.73%	3.58%	0.76%	-6.22%	-35.95%	15.60%	-1.73%	9.88%

주 : 누적은 지난 쿼드러플워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 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120	-0.47%	34	874	0.00%	NAV (ETF-NAV)%	25,550	25,552
KODEX200	-90	-0.35%	3,636	93,447	2.86%		-0.22%	-0.32%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0%	0.00%
증가/100	254.95	254.70	254.91	255.55	254.97	설정주수	50	700
eff.delta	1.46	1.10	0.93	0.91	1.00	환매주수	0	1100
diff/basis	-0.10%	-0.20%	-0.11%	0.35	-0.23	상장주수	14700	1640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59	콜평균	0.151	풋평균	0.167	역사적 (5일)	11.6	역사적 (20일)	12.4
월물 행사가격		1305					1306		
		260.0	257.5	255.0	252.5	250.0	257.5	255.0	252.5
Call	가격	0.24	0.65	1.57	3.10	5.20	3.65	5.00	6.60
	전일 대비	-0.17	-0.40	-0.65	-0.95	-0.85	-0.70	-0.55	-0.55
	내재변동성	15.00	14.10	13.40	11.80	< 3.0	13.10	13.60	14.10
	거래량	400,980	320,235	83,662	16,104	3,759	1,550	799	379
	미결제	41,105	30,167	18,864	9,959	7,215	1,471	1,973	964
Put	가격	5.30	3.15	1.60	0.65	0.22	5.55	4.45	3.45
	전일 대비	0.65	0.38	0.17	-0.04	-0.07	0.00	0.25	0.20
	내재변동성	20.20	17.10	16.30	15.90	16.10	14.20	14.80	15.10
	거래량	60,990	293,100	349,887	305,760	183,783	1,106	2,316	4,406
	미결제	6,161	11,856	17,933	21,762	34,375	786	2,748	2,116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615,816	539,690	392,635	80	889	481	18,394	428
	매도	607,639	523,458	418,011	0	792	434	17,727	352
	비중	39.0%	33.9%	25.8%	0.0%	0.1%	0.0%	1.2%	0.0%
순매수 누적	전일	8,177	16,232	-25,376	80	97	47	667	76
	누적	40,651	54,428	-92,824	-20	-1,181	-780	-164	-105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664,381	473,021	355,622	0	1,476	314	515	17,853
	매도	657,256	467,416	369,154	80	1,549	318	495	16,914
	비중	43.7%	31.1%	23.9%	0.0%	0.1%	0.0%	0.0%	1.1%
순매수 누적	전일	7,125	5,605	-13,532	-80	-73	-4	20	939
	누적	40,345	31,100	-69,317	0	219	-837	114	-1,624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4,967,082	9,139,656	9,197,958	4,967,707	-	-	-	-
	기타	-	-	-	-	-	-	-	-
	합계	4,967,082	9,139,656	9,197,958	4,967,707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187	0.06	11,152	0.29	1,117	0.38	61,453	1.57
	비차익	15,781	5.38	626,880	16.03	19,578	6.67	664,790	17.00
	합계	15,969	5.44	638,033	16.31	20,695	7.06	726,244	18.57
베이스스수준		1.475	1.375	1.275	1.175	1.075	0.975	0.875	0.775
차익성순매수		6865	15013	21087	3319	2406	557	422	284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05/06 (월)	05/03 (금)	05/02 (목)	04/30 (화)	04/29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61.48	1,965.71	1,957.21	1,963.95	1,940.70
	이동평균	20일	1,934.39	1,932.68	1,932.37	1,933.67	1,934.78
		60일	1,969.61	1,969.19	1,968.73	1,968.66	1,968.56
		120일	1,963.19	1,962.80	1,962.57	1,962.33	1,961.86
	이격도	20일	101.40	101.71	101.29	101.57	100.31
		60일	99.59	99.82	99.41	99.76	98.58
	거래대금(억원)		39,409.7	42,261.9	41,810.7	49,747.2	36,480.4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0.35	0.37	0.37	0.44	0.32
	투자심리도		50	60	60	60	60
	ADR		115.81	106.16	103.15	97.67	96.30
	이동평균	20일	92.69	92.03	91.61	91.33	91.48
	VR		137.93	172.01	138.66	118.35	92.61
코스닥시장			05/06 (월)	05/03 (금)	05/02 (목)	04/30 (화)	04/29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567.13	565.33	560.48	563.87	568.36
	이동평균	20일	553.13	552.14	551.64	551.51	550.96
		60일	542.69	541.62	540.50	539.51	538.50
		120일	521.20	520.80	520.41	520.05	519.64
	이격도	20일	102.53	102.39	101.60	102.24	103.16
		60일	104.50	104.38	103.70	104.51	105.54
	거래대금(억원)		20,845.8	22,629.2	23,168.1	27,036.0	24,286.3
시장지표	거래대금 회전율		1.64	1.78	1.84	2.14	1.91
	투자심리도		70	70	60	50	60
	ADR		116.43	106.35	102.38	100.61	98.55
	이동평균	20일	94.68	94.12	93.86	93.71	93.89
	VR		189.39	147.42	116.90	102.17	128.73
자금지표			05/06 (월)	05/03 (금)	05/02 (목)	04/30 (화)	04/29 (월)
국고채 수익률(3년, %)			2.56	2.47	2.44	2.49	2.52
AA-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 %)			2.92	2.83	2.81	2.85	2.88
원/달러 환율(원)			1,094.50	1,097.10	1,101.60	1,101.20	1,107.20
원/100엔 환율(원)			1,119.39	1,132.76	#N/A	1,125.96	1,133.65
CALL금리(%)			2.76	2.75	2.76	2.77	2.76
국내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111	-513	280	126
해외 주식형펀드 증감(억원, ETF제외)			-	-172	-131	-119	0
주식혼합형펀드 증감(억원)			-	3	233	99	232
채권형펀드 증감(억원)			-	977	363	-3,259	2,390
MMF 잔고(억원)			-	648,608	653,891	652,111	675,198
고객예탁금(억원)			-	183,559	182,689	179,975	185,650
순수예탁금 증감(억원)			-	607	-273	-6,195	1,054
미수금(억원)			-	1,473	1,207	1,104	1,128
신용잔고(억원)			-	45,973	45,975	45,691	45,468